



남원시는 고병원성 AI가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제주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 AI 위기경보 '심각'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비상대응 체계 구축·종합 방역대책 추진

남원시는 고병원성 AI가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제주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환주)를 가동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남원시는 AI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나 도내에서 (김제, 정읍, 고창·부안) AI 발생에 따라 차단 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179농가에서 983만 5,489 마리의 가금류(닭, 오리 등)를 사육, 도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차단을 위한 예방과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남원시는 본부장(남원시장), 통제관(안전경제건설국장), 담당관(축

산과장), 재난안전상황실장(안전재난과장) 및 13개 협업가능별 실무반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1차 회의를 열었다.

이환주 남원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위기경보단계 상향(경계→심각) 조정에 따라 고병원성 AI 가축 방역 대책본부를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가금농장, 작업장 등에 대한 일제소독과 가금류 이동통제를 강화하는 등 관내 유입방지를 위해 AI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대책을 강화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로 13개 실무반 협업 부서 및 유관기관과 통합적으로 대응하여 AI가 유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이환주

시장은 전 가금농가(179호)에 소독철저와 AI가 진정될 때 까지 입식자제를 호소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남원시는 현재 춘향골체육공원 등 4개의 소독 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안 기장군에서 조류인플루엔자의 심숙이 발생됨에 따라 인월 지역에 추가 설치하여 모두 5개소의 소독 초소를 운영하게 된다.

이환주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축산과와 축산인들의 노력을 위로하며 "그동안의 축적된 노하우로 이번 상황에서도 적극 대처하여 우리지역에는 한 농가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가축질병 청정 지역으로 명성을 유지해주시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AI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실무반 편성 24시간 운영 등

임실군이 조류인플루엔자(AI) 전국 확산에 따라 심민 군수를 본부장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군은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를 군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하고 신영우 부군수 주재로 주요 협업부서가 참여한 긴급대책회의를 갖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 관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전 차단을 위해 관촌면 진입로 부근에 소독초소 및 통제초소를 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개 실무반을 편성해 AI 종료까지 24시간 운영한다.

신영우 부군수는 "전국적으로 확산



되는 AI 위기상황인 만큼 사전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옥천인재숙 명문대학 대거 합격

서울대 1명·연세대 2명 등

순창군 옥천인재숙이 2017년 수시 최초 발표결과 수료생들이 서울대학교 등 명문대학에 대거 합격하면서 인재양성의 요람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군은 2017학년도 대학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 결과 현재까지 옥천인재숙 수료생 43명 중 서울대 1명(순창고), 국군 간호사관학교 1명, 연세대 2명, 고려대 1명 성균관대, 경희대, 광운대, 항공대 등을 포함한 수도권 명문대와 목포해양대, 전남대, 전북대 등 지방 국립대에 20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전북대 의예과, 원광대 한의예과 등 의학계열 대학 합격생도 다수 포함돼 있다.

군은 12월 30일까지는 수시 추가 합격생이 계속 발표될 예정이고 31일부터는 정시가 본격 시작되는 만큼 올해는 옥천인재숙 개인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옥천인재숙에 2학년까지 수료한 제1고 학생도 서울대학교에



합격해 순창지역에서는 올해 수시로 2명이 서울대에 합격하는 성과도 거뒀다. 군 측은 올해 수능 성적이 어느 해 보다 어려웠지만 인재숙과 지역 학교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각 기관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학생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맞춤형 수업을 진행한 결과가 이 같은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다양한 입시설명회와 사관학교 방문 등을 통해 학생들이 꿈을 이루

고자 하는 성취욕을 자극한 점도 성공의 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순창 옥천인재숙은 내년부터는 순창군 시책사업에 부합하는 순창희망 장학금을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이러한 기초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순창희망 장학금은 의치, 한의예, 간호학과 합격생 중 졸업 후 2년 이상 순창지역에 취업하여 봉사할 희망하는 학생에게 대학 재학 기간 중 등록금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또래들이 느끼는 고민 명랑하게'

고창여고, 전북사랑 UCC 대상

작은영화관 주민시네마스를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2016 우리고장 우리이웃 전북사랑 UCC 공모전'에서 고창여고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

전북도와 고창군을 비롯한 14개 시군이 주최하고 전주시미디어센터 영시미가 주관한 2016년 전북사랑 UCC 공모전 시상식에서 고창여고고등학교 김정윤 외 2명이 제작한 'os VS 와신상담'이 청 소년부문에서 대상(전라북도지사 상)을 수상했으며, 고창여고 양선경 외 10명이 제작한 '마이틸'은 우수상을 김혜민 외 10명이 제작한 '성장통'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2016 우리고장 우리이웃 전북사랑 UCC 공모전' 시상식은 오는 20

일 김제시 작은영화관에서 개최된다.

대상을 차지한 'os VS 와신상담'은 고등학생들이 문과생과 이과생으로 나뉘어서 재기 넘치는 대결을 펼쳐가는 독특한 구성을 통해 또래 학생들이 느끼는 고민들이 명랑하고 발랄하게 표현된 점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

고창여고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작은영화관 운영 활성화 연계사업으로 고창군로부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주민 시네마스 운영사업' 지원 학교로 선정돼 영상장비 지원과 UCC 제작 기초교육 및 영상촬영·편집·제작 등의 운영 지원을 받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 눈썰매장 관광객 몰려 인기

순창에서 처음 문을 연 눈썰매장이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시범운영한 결과 천여명의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몰리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주차장에 조성된 눈썰매장은 성인용과 어린이용 눈썰매장을 별도로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외에 ATV, 미니기차와 실내 대형 에어바운스 놀이 시설 등을 갖춰 하루 동안 가족들이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다. 특히 온돌마루 등 휴게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부모들도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편 눈썰매장 이용료는 인터넷 예매가 기준 1인 10,000원(정상이 15,000원)이며 순창군민은 8천, 다문화 다자녀 등은 5,000원으로 할인 받는 등 다양한 할인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고창군, 식도락마을 푸드 전시회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향토음식의 새로운 가치를 찾기 위한 '식도락마을 푸드 전시회'를 개최했다.

지난 16일 북분지테마파크 내 고창풍천 장아젤빙식품센터에서 열린 식도락마을 푸드 전시회에는 고창을 호양·화산마을을 비롯해 마평마을·반암마을(아산면), 연동마을, 중여마을(공음면), 송림마을(상하면), 향산마을(성송면), 하전마을(심원면), 상금마을(대산면), 조포마을(성내면), 연기마을(부안면) 12개 식도락과 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마을별 향토음식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활발한 교류와 공동체 의식 함양의 활성화를 증대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고창군은 12개 식도락 마을을 선정, 색깔 있는 12가지 음식 이야기와 상징품을 개발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 미래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 중간보고회

임실군은 균형 종합상황실에서 '임실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임실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연구'는 오는 2017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10년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추진전략 설정, 전략사업 발굴과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진행된다.

또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19일 심민 군수를 비롯해 간부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건 분석 및 미래상, 목표별 추진전략 등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구진들과 열린 토론을 벌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심민 군수는 모두 발언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군민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하고 계획적으로 실현해 나가며 한 단계 발전하는 군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가예산 확보 및 정책기반지침으로 활용하고 미래성장 핵심전략 발굴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국토연구원과 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현황조사, 부서간담회, 주민의식조사 등을 실시했다.

의식조사 결과 군의 발전을 이끌 자원으로 임실치즈를 비롯해 농특산물, 옥정호·성수산 등 관광휴양자원을 우선순위에 뒀으며 미래 대표적 이미지로 '젊고 활기찬 농촌도시'와 '청정생태도시'를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부터 모든 LPG승용차 일반인에게 이전

차량등록 기준일로부터 5년 후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이 현저히 적은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를 일반인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현재 장애인, 상이 국가유공자(장애인)가 5년 이상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만 일반인에게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는 차량등록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2011년 12월 31일 이전) 모든 LPG승용차는 일반인에게도 이전이 가능해진다.

즉, 일반인도 5년이 지난 모든 LPG 승용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장애

인 LPG 승용차는 물론 택시, 렌터카 관계없이 차량등록 기준일로부터 5년만 지나면 일반인에게 이전등록이 가능해진다.

남원시의 2016년 11월 30일 기준 차량등록대수는 총 40,802대이며 그중 LPG차량은 4,210대로서 약 10.3%를 차지하고 있다. LPG차량은 가격대비 연비가 좋으며, 소음이 적어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편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LPG차량을 전면 자유화할 경우 미세먼지를 내뿜는 경유차를 대체하는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경찰, 연말연시 민생안정 특별치안활동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에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들뜬 사회분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연말연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생안정 특별치안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여성안심귀갓

길 등 취약지역·시간 위주의 가시적 방범활동을 펼치고 특히 순창경찰의 집중순찰활동을 위한 특수시책인 '페퍼 레인저스'를 가동 시키며 사전 범죄분위기에 주의를 기울여 예방한다.

더불어 기능구분없이 쏠 기능이 협업하여 각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여 연말연시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임실군립도서관 연말 프로그램 운영

임실군립도서관은 '책과 사람, 문화가 있는 도서관 연말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서관 연말 프로그램'은 지난해 30일 작가초청 특강 '인간관계 감동요리법'을 시작으로 독서한 책의 좋은 구절을 낭송하고 동아리 활동이야기를 나누는 '가을 여행 내 마음의 밑줄' 행사를 연달아 개최했다.

또한 지난 9일은 관내 어린이 80여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토끼의 피' 인형극을 열어 인기를 끌었으며 오는 21일은 책을 타인에게 분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책가게 내 책 줄게 네 책 다오가 진행 된다.

특히 '독서를 명령하라'의 저자초청 특강 '책과 함께 하는 삶'을 비롯해 오는 24일은 전래놀이자극증 과정 수강자 20여명의 재능기부로 '전래놀이한마당 큰잔치'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군립도서관(☎640-29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